

# 봉사로 여는 新한류... “광주, 감언”

〈감사합니다〉

**(사)희망나무 4년째 동남아 의료활동  
“부정적 편견 깨고 신뢰·애정 높였다”**

광주의 다문화가족 봉사단체와 의료봉사팀이 4년째 동남아시아 각국의 ‘오지 마을’을 돌며 봉사활동을 전개, ‘신한류(新韓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열악한 진료 환경 탓에 의료 서비스에 목말라 하는 동남아시아 각국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며 한국과 광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간 500여명 진료=(사)희망나무가 광주의 의료봉사팀·자원봉사팀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동탑성 라이봉 빈터이 화간마을에는 하루 300여 명의 주민이 몰려 복새통을 이었다.

지난 2008년 광주로 시집 간 썬엄 티배친(26)씨가 4년 만에 고향집을 방문하면서 의료진을 데려왔다는 소문에 주말과 휴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건소로 몰려든 것이다.

베트남 남부 중심도시 호치민에서 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보건소 외에는 달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탓에 광주에서 온 의료봉사팀은 이들 주민들에게 ‘가물 속 단비’ 같은 존재였다.

의료진과 봉사팀은 낮 최고기온 36도, 습도 86%로, 그늘에서도 구슬땀이 맺히는 고온 습한 날씨 속에서도 선공기 한때에 의지해 환자들

을 진료했다. 이틀간 진료 환자 수는 400여명에 이르고 이중 11명은 안과 수술을 받기도 했다.

◇국경시대 오지마을까지=앞서 지난 23일에는 20명으로 구성된 의료진과 봉사단 1개팀이 호치민에서 7시간 거리인 캄보디아 국경시대인 베트남 동탑성 압후종시 공지마 마을까지 다녀왔다. 지난 2008년 결혼해 광주에 정착한 이주여성 트란 티 트링 니업(26)씨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봉사팀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한결같은 달려왔다.

친정집 할머니의 눈이 실명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데다 이웃 주민들이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량과 철부선을 이용해 이동한 뒤 메콩강을 따라 소형 목선에 의료장비와 물품을 실었다.

의료진은 이곳에서 100여 명의 환자들 진료했고, 풍선과 크레파스, 축구공, 배드민턴 라켓 등을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편견 깨고 ‘신한류’ 계기=광주 의료봉사팀의 이 같은 진료와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성과 고마움에 베트남 당국과 주민들도 환대로 답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데 대한 부정적 편견 탓에 진료가 단계에서부터 까다롭게 굴며 감시해왔던 베트남 당국도 봉사



광주지역 의료·자원봉사팀이 지난 23일 베트남 국경시대 오지마을인 동탑성 공지마마을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활동 이틀째날엔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주여성의 친정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봉사활동을 펼친 캄보디아 광봉마을에서는 양 한 주지사가 직접 봉사현장을 방문해 봉사팀을 격려하기도 했다.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광주시의원)은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했지만, 이주여성의 모국에선 아직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많다”며 “그들에게 시택인 한국과 광주에 대한 신뢰감, 애정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4년째 봉사활동을 벌이

고 있다”고 밝혔다.

(사)희망나무와 의료진은 내친김에 ‘광주 브랜즈’를 내걸고 동남아시아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의료팀을 꾸려 출발하는 ‘광주 긴급의료구호팀’ 구성 계획도 구상중이다.

◇광주시민 후원도 한몫=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역민들의 물품 후원과 재능 기부도 답지해 더욱 뜻깊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볼펜 1000여개를 모아왔고, (주)프라임제약이 파스 등 의약품 일체를, 다비치인경 김인규 대표가 돈보기 500개를 기증했다.

한국 청년회의소(JC)에서는 빈터이 마을의 우물 개발비로 5000달러를 내었고, ‘인디언 수니’로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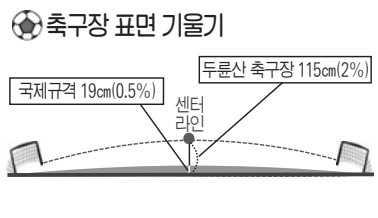
세를 타고 있는 가수 이인숙씨는 즉석 공연으로 재능기부를 했다.

한편, (사)희망나무와 의료봉사팀은 지난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4년째 ‘이주여성 친정 방문 및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봉사에는 광주시 의사회 소속 아이안과(서정성·이영창 원장), 아이퍼스트 아동병원(전성현 원장), 우리아동 소아과(한승표 원장), 조선대병원 내과 김윤성 교수와 미르치과(박석인·최원호 원장) 등 12명이 참여했고, 문상필 광주시의원과 서일권 아름다운 가게 전국 지역본부장, (사)희망나무 류한호 이사장, 정승욱·이영창 공동대표, 이준식 이사 등 자원봉사팀 30명이 참여했다.

/베트남=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축구 경기장 중앙-골대 지면 차이 115cm 해남 두륜산 영터리 축구장 감사원 적발

해남군이 경기장 중앙이 골대의 지면보다 115cm나 높은 영터리 축구장을 지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경기장은 규정보다 4배나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전국대회까지 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최근 감사원 통해 해남군이 19억여원을 들여 건설한 두륜산 축구장이 국제 규격에 미치지 못하게 부실 시공돼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지난 2010년 준공된 해남군 두륜산 국립공원 내 다목적 체육공원 축구장은 설계 때부터 오류가 발생해 골포스트와 센터라인의 높낮이 차가 무려 115cm(국제규격 19cm)였고, 축구장 표면 기울기도 국제규격인 0.5%보다 4배 큰 2%였다. 축구장 기울기는 지반의 수평도를 나타내며, 2%의 기울기는 100m당 2m의 높이차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포함했다. 감독관청인 해남군은 설계 변경을 지시하지 않은 채 임시 공사를 통해 이 차이를 60cm로 줄이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기장에서는 그 해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 열려 26게임이 진행됐다. 경기 전, 해남군은 군수가 주재한 간부회를 통해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11년 9월 두륜산도립공원에 축구장을 설치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공청인 해남군은 설계 변경을 지시하지 않은 채 임시 공사를 통해 이 차이를 60cm로 줄이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기장에서는 그 해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 열려 26게임이 진행됐다. 경기 전, 해남군은 군수가 주재한 간부회를 통해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11년 9월 두륜산도립공원에 축구장을 설치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 제68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9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강당  
배은희 교수의 ‘만성 신질환 환자의 건강관리’

광주일보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9일 제68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배은희 교수의 ‘만성 신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신장내과 배은희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만성 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원인, 예방법과 치료방법에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7월 2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 만성 신질환 환자의 건강관리
- 강 사 : 배은희 신장내과 교수



- 미국 신장학회
- 국제 신장학회
- 미국 생리학회
- 대한 내과학회
- 대한 신장학회
- 대한 고혈압학회
- 전해질 협회

- 일 시 : 6월 2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 전남도 다문화정책계 신설... 행정조직 개편

전남도가 다문화정책계를 신설하는 등 행정 조직을 개편했다. 전남도는 25일 “3과1실을 늘리고 1과를 폐지하는 행정조직 정비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직 정비안에 따르면 여수박람회지원관실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해 박람회 사후 관리, 국제행사 유치, 한·미 및 한·중 FTA 산업별 종합대책 수립과 피해대책 마련 등 국제관련 업무를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행정지원국의 세무회계과는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해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계약심사 업무도 강화해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 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또 관광문화국은 기능이 유사한 담당을 통합하고 해외관광마케팅담당을 신설해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전담토록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개선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외국

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문화담당을 다문화정책담당으로 바꿔 기능을 보강했다.

소방본부의 경우 응급의료 1339 신고전화기 119로 흡수 통합돼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담당으로 있던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전담토록 했다.

이번에 정비한 조직 및 정원은 7월 1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되면 8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꽃시장 베이징포럼 참석 출국

강운태 광주시장이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강 시장은 방문 첫날인 26일 베이징을 방문해 귀진릉 시장을 면담하고 광주시와 베이징시간 경제·문화·관광·체육·청소년·투자유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력MOU를 체결한다.

27일엔 세계 30여 개 도시의 지도자들이 개최하는 베이징포럼 개막식에 참석,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박희태 前의장 집유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옛 한라리조트(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대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캠프 재정·조직 담당이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광뉴스

www.ocskj.com

# 광주화교 중국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

## 광주에 단 한곳뿐인 6년제 중국학교

- 모집인원 60명(선착순 모집)
- 지원자격 2006년 이후 2007년 12월 이전 출생자
- 원서교부 2012년 7월 1일 ~ 7월 9일(9일간) 오전 10:00~오후 04:00
- 원서교부장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원서접수 2012년 7월 10일 ~ 7월 14일(오전 10:00~오후 03:00)
- 원서접수장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매  
소명합판 사진 3매(3×4cm), 주민등록등본 1통
- 서류전형일 2012년 7월 15일(합격자대상자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원서료 10,000원(원서 교부시)
- 유치부등록일 2012년 7월 16일 ~ 7월 20일
- 소집일 2012년 8월 17일 오전 10시
- 개원일 2012년 8월 21일(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유의사항”

- ① 생년월일 미달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대기자 등록 가능 : 정원 미달 시 생일 순으로 입학가능)
- ② 등록후이라도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경우 무효로 합니다.
- ③ 학기중에는 입학이 불가능 합니다.(華僑 제외)
- ④ 입학 후 본교의 학업을 포기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비는 산정 후 반환됩니다.
- ⑤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실 ☎ 232-4163 - 전화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 光州華僑中國學校 Tel.232-4163